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7. Vol. 36, No. 1, 43-55

Original Article
© 2017 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
https://doi.org/10.15842/kjcp.2017.36.1.005
eISSN 2733-4538

The Effects of Shame Memory and Schematic Beliefs on Paranoia

Da-Yae Baek[1] Hoon-Jin Lee[2†]

[1]Department of Psychiatry, Asan Medical Center, Seoul; [2]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This study aimed to clarify the effect of shame memory on paranoia and social anxiety, based on the study of Matos, Pinto-Gouveia, & Gilbert (2013). Shame has been conceptualized as a self-conscious emotion that focuses on the negative aspects of the self, but this study also notices that shame may be related to the perception of social put-down, neglect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e three types of shame memories were measured; the internal shame memory, external shame memory, and external-humiliative shame memory. On the basis of threat anticipation model of paranoia, it is hypothesized that negative self and other schema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ternal-humiliative shame memory and paranoia. The effect of each shame memory on paranoia and social anxiety was analyzed.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es suggest that paranoia was predicted by the external-humiliative shame memory, and the social anxiety by internal shame memory. The negative beliefs about the self and others showed a partial mediation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xternal-humiliative shame memory and paranoia.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are discussed.

Keywords: paranoia, shame memory, schematic belief, social anxiety

수치심은 보편적이면서도 매우 강렬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우울, 섭식장애, 중독, 경계선 성격장애, 대인관계 문제 등 다양한 심리적 장애와의 관련성이 주목받아 왔다(Gilbert, Allan, & Goss, 1996; Murray, Waller, & Legg, 2000; O'Connor, Berry, Inaba, Weiss, & Morrison, 1994; Tangney, Wagner, & Gramzow, 1992). 수치심은 자의식적 정서로 분류되며, 부정적인 자기 지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험으로 알려져 있다. Lewis (1971)는 같은 자의식적 정서에 해당하는 죄책감의 경우 자기의 일부를 문제시하는 반면, 수치심은 전체 자기가 문제시되는 경험이라 하였다. 또한 수치심은 부정적 사건에 대한 전반적이고 안정적인 자기 귀인(Tracy, Robins, & Tangney, 2007), 자기를 나쁘고, 열등하고, 결함있는 존재로 판단하는 경향과 관련이 깊다(Tangney & Dearing, 2002).

한편 수치심의 경험에서는 자기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인식 또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전통적인 문헌들에서 수치심은 실재하는 부정적 평가, 혹은 자신을 비판하는 가상적인 청중에 대한 반응으로 개념화되어 왔으며(Ausubel, 1955; Benedict, 1946), 타인에 의해 관찰되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느낌도 수치심 경험에 흔히 포함된다(Goss, Gilbert, & Allan, 1994). 수치심에 흔히 동반되는 눈맞춤의 회피, 위축 등의 행동적인 반응들 또한, 타인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타인으로부터 철수하고자 하는 동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Wilson, Drozdeck, & Turkovic, 2006).

사회진화적인 맥락에서 수치심을 살펴본 Gilbert (1997, 1998, 2007)는, 애착, 사회적 관계에 대한 내적 동기가 수치심의 원천이 된다 하였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매력적인 존재'로 비추어지기를 원하는데,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긍정적 평가가 안전함을 의미하며,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타인으로부터 거부를 당하거나 '매력 없고 보잘 것 없는 사람'으로 지각되는 것은 일종의 위협 신호이며, 따라서 이는 상당히 불쾌하고 고통스럽게 경험된다. Gilbert (1997, 1998)는 이처럼 타인에게 평가절하되는 경험을 '외적 수치심'으로 정의하였으며, 스스로 자기를 열등하고, 불충분한 존재로 경험하는 '내적 수치심'과 구분하였다. 내적 수치심과 외적 수치심은 그 주의의 초점에서 구별된다. 내적 수치심 경우 자기

†Correspondence to Hoon-Ji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Korea; E-mail: hjlee83@snu.ac.kr

Received Aug 30, 2016; Revised Dec 19, 2016; Accepted Jan 6, 2017

This paper is based on the master's thesis of Da-Yae Baek.

www.kci.go.kr

에 대한 느낌과 판단에, 외적 수치심의 경우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에 내적 수치심의 경우 스스로를 부족하고 불충분한 존재로 지각한다면, 외적 수치심에서는 타인이 자신을 열등하고, 혐오스러운 존재로 볼 것이라 생각한다.

내적, 외적 수치심의 구분은 수치심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수치심 경험을 수집한 Nam (2008)의 연구에서, 수치심 경험은 크게 '부족함이 노출되는 상황'과 '망신과 무안을 당하는 상황'으로 나누어짐이 확인되었으며, 이때 전자는 내적 수치심에, 후자는 외적 수치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 수치심 단어를 수집하고 분류한 연구(Nam, Cho, & Lee, 2006)에서도 수치심 단어는 크게 두 요인으로 구분되었는데, 첫 번째 요인은 '쑥스러운', '숫기 없는' 등 사회적 장면에서 느끼는 수줍음 감정이었으며 두 번째 요인은 '멸시당하는', '모욕당하는' 등 외부로부터 모욕이나 멸시를 받는데서 느끼는 강한 수치심 감정이었다. 이 연구에서 첫 번째 요인은 내적 수치심을, 두 번째 요인은 외적 수치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치심 연구에서는 내적, 외적 수치심의 구분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편이었으며, 이는 흔히 사용되는 수치심의 측정 도구가 주로 내적 수치심만을 반영하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수치심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척도인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Cook, 1993)는 자기를 향한 강한 부정적 정서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 자의식적 정동 검사(Test of Self-Consciousness Affect; Tangney, 1990)나 수치심 경험 척도(Experience Shame Scale; Andrews, Quian, & Valentine, 2002) 등도 주로 자기 비난, 스스로에 대해 느끼는 부끄러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적 수치심을 반영하고 있는 도구로는,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사람들은 나를 약하다고 생각한다' 등 타인이 나를 어떻게 지각하고 판단하는지를 측정하는 The Other As Shamer Scale (Goss, Gilbert, & Allan, 1994)이 있기는 하나, 위에 언급한 수치심 측정 도구에 비해서는 널리 사용되지 않은 편이었다.

한편 수치심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현재의 수치심 경험, 수치심을 쉽게 느끼는 경향성(Shame Proneness) 등을 다루어 왔는데, 최근 Matos와 Pinto-Gouveia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자들은 과거에 경험하였던 수치심에 대한 기억과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의 관련성에 주목해 왔다. 양육자와의 관계를 비롯하여 아동기와 청소년기 등 비교적 생애 초기에 경험한 수치심 기억들은 조건화된 정서 반응으로 자서전적 기억 안에 자리 잡게 된다(Gilbert, 2003; Matos & Pinto-Gouveia, 2010). 이때 수치심 기억들은 개인에게 매우 중요하면서도 불쾌한 경험이기 때문에, 마치 외상 기억과 유사하게 침투, 회피, 과잉각성, 해리와 같은 속성을 가지며, 개인의 자기 개념과 정체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Matos & Pinto-Gouveia, 2010; Pinto-Gouveia & Matos, 2011).

수치심 기억 연구자들은 이러한 가정을 토대로, 외상 경험의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수치심 기억이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수치심의 이론적 정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 후,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설명에 부합하는 감정을 느꼈던 경험을 회상하도록 한 뒤, 그와 관련하여 사건충격척도 수정판(Impact of Event Scale-Revised; Weiss & Marmar, 1997)과 사건중심성척도 단축판(Centrality of Event Scale-Short Form; Berntsen & Rubin, 2006)에 응답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사건충격척도 수정판과 사건 중심성 척도는 각각 수치심 기억이 개인에게 미친 충격 정도, 개인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 결과 수치심 기억과 우울, 섭식장애, 편집증, 사회불안 등의 정신병리 간의 관련성이 밝혀졌다(Matos, Ferreira, Duarte, & Pinto-Gouveia, 2015; Matos & Pinto-Gouveia, 2010; Matos, Pinto-Gouveia, & Gilbert, 2013; Pinto-Gouveia & Matos, 2011; Pinto-Gouveia,, Matos, Castilho, & Xavier, 2014).

특히 이 일련의 연구들 중에서, Matos 등(2013)은 수치심 기억이 편집증,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편집증과 사회불안은 모두 대인관계 맥락에서 경험되는 현상이며, 자신이 타인의 주의,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믿음, 사회적으로 위협적인 정보에 대한 민감성 등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Gilbert, Boxall, Cheung, & Irons, 2005). 그러나 편집증의 경우 타인이 자기를 해하리라는 의도에 대한 지각, 사고를 의미하는 반면(Bentall, Corcoran, Howard, Blackwood, & Kinderman, 2001; Freeman & Garety, 2000), 사회불안은 자신의 결함이 타인에게 드러나리라는 불안, 타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Clark & Wells, 1995)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즉 편집증에서는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인 가해에 대한 공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Freeman & Garety, 2003, 2004), 사회불안의 핵심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배제, 관찰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자기가 매력 없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의 호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Clark & Wells, 1995; Gilbert, 2001)

그런데 Matos 등(2013)의 연구에서는 수치심 기억이 편집증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사회불안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다소 의문스러운 결과인데, 사회불안의 주요 양상인 수줍음, 창피함, 소심함, 거절에 대한 두려움 등은 수치심과 겹치는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Nam, 2008). 또한 스스로를 '결함이 있고 무능력한 존재'로 보는 사회불안자들의 신념(Gilbert,

www.kci.go.kr

https://doi.org/10.15842/kjcp.2017.36.1.005

2001)은 수치심의 특징적인 속성인 '자기의 전체가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Lewis, 1971)'과 매우 흡사한 면이 있고, 수치심 경향성은 사회적 회피나 상호작용에 대한 불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Lutwak & Ferrari, 1997).

Matos 등(2013)은 이러한 결과를 외적, 내적 수치심의 구분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치심 기억의 점화를 위한 지시문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치심의 정의를 제공하였는데, 여기에는 자신의 결함에 초점을 맞춘 내적 수치심, 타인으로부터 평가절하되는 경험에 초점을 맞춘 외적 수치심의 정의가 모두 포함되었다. 이때 점화된 수치심 기억이 주로 타인에게 무시, 굴욕당했던 경험, 즉 외적 수치심 경험이었기 때문에 타인의 악의적 의도를 핵심으로 하는 편집증과의 관련성이 나타났던 반면, 사회불안과는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외적 수치심 기억과 편집증의 관련성은, 편집증을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인 위협예상모형(Freeman et al., 2005; Freeman & Garety, 2003, 2004; Freeman, Garety, & Fowler, 2008; Freeman, Garety, Kuipers, Fowler, & Bebbington, 2002; Savatore et al., 2012)의 배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다. 위협예상모형에서는 편집증을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상해에 대한 일종의 불안으로 본다. 이때 과거에 불안을 비롯한 부정적 감정을 유발한 스트레스 사건들, 비교적 생애 초기에 대인관계에서 발생한 부정적인 경험들이 현재의 경험을 편집증적으로 해석하는 배경을 제공하게 된다. 실제로 위협예상모형을 바탕으로 한 경험적인 연구들(Campbell & Morrison, 2007; Gracie et al., 2007)에 따르면, 과거 대인관계에서 위협, 폭력, 따돌림 등의 부정적 경험은 이후에 편집증으로 발전할 취약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수치심 기억과 관련시켜 보면, 외적 수치심 기억은 내적 수치심 기억과 비교하였을 때, 타인으로부터의 무시, 거절, 비난, 배제를 당하는 상황에서 경험한 매우 부정적이고 강렬한 경험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위협 시스템의 과활성으로 이어져, 가해에 대한 공포, 타인의 악의적 의도에 대한 가정을 비롯한 현재의 편집사고로 발전한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선행 연구에서도 내적 수치심보다는 외적 수치심이 편집증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던 바 있다. Matos 등(2013)의 연구에서는 수치심 기억과 더불어 수치심 경향성도 측정하였는데, 이때 수치심 경험 척도(Andrews et al., 2002)로 측정한 내적 수치심보다는 Other as Shamer Scale (Goss et al., 1994)로 측정한 외적 수치심이 편집증을 더 잘 예측하였다(Matos et al., 2013). 또한 Nam 등(2006)의 수치심 단어 분류 연구에서도 수줍음 감정과 관련된 요인에 비해, 모욕감 요인이 피해의식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Matos 등(2013)의 연구가 편집증에 영향을 미친 수치심 기억의 속성을 경험적으로 확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술하였듯이 연구에서는 과거 경험의 회상을 위해 제공한 지시문에 내적, 외적 수치심의 정의가 고루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이 회상한 경험의 속성을 구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탓에, 기억 점화 단계에서 개인이 회상한 경험이 내적 수치심이었는지, 외적 수치심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억의 표집 단계에서 내적, 외적 수치심 기억을 변별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과거 수치심 경험의 속성이 현재의 편집성향,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외적 수치심을 보다 세분화하여 수집하였다. 이는 주의의 초점이 타인에게 맞추어진 수치심 경험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타인의 역할이 자기를 지켜보는 소극적인 관찰자에 그치는 경우와 타인이 보다 적극적, 주도적인 입장에서 수치심을 유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는 서로 구별될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타인의 역할이 소극적인 수치심, 즉 타인의 눈에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로 비추어지는 경험은 본 연구에서는 '외적 수치심'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우리말로는 '낯을 들 수 없는', '창피한' 경험으로 표현할 수 있겠으며, 타인은 그 상황에서 구경꾼, 관중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타인의 역할이 적극적인 수치심 경험의 경우, 자신을 비하하는 타인의 적대적 의도를 보다 분명하게 지각하는 강한 정동인 '굴욕감(humiliation)'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 본 연구에서는 '외적 굴욕감 수치심'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타인이 나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깔보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은 가해자, 주도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대인관계에서의 외상적인 경험이 편집증의 발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위협예상모형의 가정을 토대로 하여, 편집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수치심 기억은 외적 굴욕감 수치심 기억일 것이라 가정하였다.

편집증과 대조적으로, 사회불안은 외적 수치심보다는, 자기의 결함에 초점이 맞추어진 내적 수치심 기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사회불안을 지닌 사람들은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자 하는 기대는 높으면서도, 자신은 호감을 주기 어려운 열등한 존재라는 신념을 지니고 있다(Clark & Arkowitz, 1975; Clark & Wells, 1995). 또한 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기의 생각, 감정에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며, 자신이 지닌 부정적 속성들이 외부로 드러날 것이라 생각하는 자기초점적 주의이다(Clark & Wells, 1995). 이러한 사회불안의 특성들은 자신의 결함에 초점을 맞추며,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내적 수치심과 부합하는 면이 많다. 본 연구에서 내적 수치심 기억을 구분하여 측정함으로써, 선행연구에

www.kci.go.kr

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수치심 기억과 사회불안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편집증의 위협예상모형은, 편집증의 유지, 발전에서 도식(schema)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전술하였듯 위협예상모형에서는, 과거의 강렬한 대인관계 외상 경험을 통해 조건화된 불안이 편집증의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때 불안의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형성된 자기,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 즉 도식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Salvatore et al., 2012). 도식은 생애 초기 대인관계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을 설명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특히, '위협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취약한 자기'에 대한 지각을 중심으로 한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자기 도식이 편집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Fowler et al., 2006; Salvatore et al., 2012). 또한 편집증에 취약한 개인들은 스스로를 외부로부터 수용받지 못할 존재로 간주하며,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타인' 도식을 발전시키게 된다(Kilcommons & Morrison, 2005; Salvatore et al., 2012). 이러한 부정적 자기, 타인 도식이 서로 결합하여 위협시스템을 더욱 활성화시키게 되며, 현재의 경험을 편집적으로 해석하는 배경을 제공한다는 것이 위협예상모형의 골자이다. 실제로 과거의 외상적 경험, 자기, 타인 도식 및 편집증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살펴 본 Gracie 등(2007)의 연구에서, 부정적인 자기, 타인 도식은 편집증과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외상 경험과 편집증의 관계에서 자기, 타인 도식의 통계적 매개효과가 제안된 바 있다.

편집증과 밀접한 관련을 보일 것으로 가정한 외적 굴욕감 수치심 기억은, 타인의 주도 하에 강한 부정적 정동이 유발되었던, 일종의 대인관계 외상 경험에 해당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협예상모형의 가정 및 Gracie 등(2007)의 연구 결과에 따라, 외적 굴욕감 수치심 기억이 편집증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인 자기, 타인 도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편집증의 심리적 기제와 관련된 인지적, 정서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도식은 개인의 주관적인 심리적 세계에 접근하기 위한 단서로서(Yoo & Kwon, 2008), 도식의 매개효과가 확인된다면 편집증의 치료적 개입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닐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수치심 기억을 내적 수치심, 외적 수치심, 외적 굴욕감 수치심의 세 종류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수치심 기억이 편집성향 및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로 대인관계에서의 부정적 경험에 해당하는 외적 굴욕감 수치심 기억과 편집성향 간의 관계에서 도식적 신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외적 굴욕감 수치심을 경험한 기억이 외적 수치심을 경험한 기억, 내적 수치심을 경험한 기억보다 편집증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내적 수치심을 경험한 기억이 외적 수치심, 외적 굴욕감 수치심을 경험한 기억에 비해 사회불안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외적 굴욕감 수치심 기억과 편집성향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기도식, 부정적 타인도식이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방 법

참여자

서울시 소재 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양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 20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중 세 가지 수치심 기억 모두를 보고한 120명의 응답 내용을 임상심리학 전공 대학원생 3명이 평정하였고, 각 수치심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보고한 6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1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의 대상이 된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21.22세(남 = 21.44세, 여 = 20.96세)였으며, 남자 49명, 여자 65명이었다. 본 연구는 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으며, 연구 자료는 온라인 설문 시스템을 통해 수집되었다.

측정 도구

수치심 기억 지시문

선행연구(e.g. Matos & Pinto-Gouveia, 2010; Pinto-Gouveia & Matos, 2011)에서는 수치심 기억을 점화시키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에게 수치심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 후, 그에 해당하는 경험을 회상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방법론을 따르되, 연구 목적에 맞게 수치심 기억을 세 종류로 세분화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우리말 수치심 단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등 일부 수정을 가하였다. 먼저 연구참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제공되었다.

본 연구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수치심을 경험하였던 순간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수치심은 '다른 사람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느끼는 마음'으로 자기에 대해 느끼는 불쾌하거나, 원치 않는 감정이며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 감정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험될 수도 있으며, 보다 자기 자신과 관련하여 내밀하게 경험될 수도 있습니다. 수치심의 경험은 공포, 불안, 분노, 혐오 같은 다른 감정과 함께 나타날 수 있으며 숨고 싶거나 그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은 것도 수치심 경험의 일부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론적 구분에 따른 세 종류의 수치심 경험과 관련

www.kci.go.kr

https://doi.org/10.15842/kjcp.2017.36.1.005

된 우리말 표현(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13)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한편 수치심 경험과 관련된 대표적 표현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부끄러움: 일을 잘 못하거나 양심에 거리끼어 볼 낯이 없거나 매우 떳떳하지 못함. 스스러움을 느끼어 매우 수줍음*
※ *창피함: 체면이 깎이는 일이나 아니꼬운 일을 당함. 또는 그에 대한 부끄러움*
※ *모욕감: (다른 사람이) 깔보고 욕되게 함을 느낌*

다음으로 이론적인 구분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눈 수치심에 대하여 설명하는 표를 제공하였다. 즉, 내부로부터 경험하는 수치심(부끄러움), 외부로부터 경험하는 수치심-타인의 역할 소극적(창피함), 외부로부터 경험하는 수치심-타인의 역할 적극적(굴욕감)이다(Table 1).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Table 1에 제시된 세 종류의 수치심을 경험하였던 상황을 각각 회상하여 서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는 온라인 설문 상에서의 서면 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방식은 수치심을 경험하는 상황을 범주화하기 위해 수치심 경험을 보고하도록 한 Nam (2008)에서 사용된 바 있으며, 사회적 상황에서의 수치심 경험을 연구한 Leeming과 Boyle (2013), 수치심 및 죄책감 기억의 속성을 연구한 Robinaugh와 Mcnally (2010)도 이러한 방식을 따르고 있다.

3명의 임상심리학 전공 대학원생이 보고된 세 종류의 수치심 기억 각각에 대하여, 각 수치심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개별 평정하였다. 그 결과 사전에 제시한 수치심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 경험을 보고한 것으로 판단된 연구참여자 6명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수치심 경험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내적수치심 경험은 주로 발표 상황에서의 저조한 수행, 외모나 체형 등 신체적 조건의 열등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것 같은 문제를 혼자서만 모르는 것 같아 부끄러웠음', '발표를 할 때 목소리가 덜덜 떨리는 내 모습이 부끄러웠음', ' 피부가 안 좋아지고, 살이 많이 찐 내 모습을 거울로 볼 때 부끄러웠음' 등이었다. 외적 수치심 경험은 다른 사람에게 사소한 무안을 당하거나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중에 부끄러운 행동을 한 상황이 흔했으며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비탈에서 심하게 굴렀음', '연주를 마치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한심한 눈빛을 보냈음' 등이 보고되었다. 외적 굴욕감 수치심 경험은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으로, 그 예로는 '친구들이 나를 따돌린 경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을 들음', '신체적 특징을 별명으로 부르며 놀림' 등이 있었다.

수치심 경험을 보고한 후에, 세 가지 수치심 경험 각각과 관련하여 다음의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사건중심성척도 단축형(Centrality of Event Scale-Short Form, CES-SF)

Berntsen과 Rubin (2006)이 개발한 척도로 부정적 스트레스 경험이나 부정적 정서 사건이 개인의 삶의 이야기와 정체성의 중심이 된 정도를 측정하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상이나 부정적인 삶의 사건에 대한 기억이 다른 경험을 해석하는 준거점이 될 때,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다.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기억이 다른 삶의 경험에 대해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정도, 삶의 이야기에서 전환점이 된 정도, 개인의 정체성에서 핵심적 요소가 된 정도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Cho와 Lee (2011)가 번안한 사건중심성척도 한국판 중, Berntsen과 Rubin (2006) 등이 제안한 단축형에 속한 7개의 문항들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사건충격척도 수정판(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ES-R)

정신적 외상 경험, 부정적 감정과 관련된 스트레스 경험을 겪은 후에 나타나는 증상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로 Weiss와 Marmar (1997)에 의해 개발되었다. 외상 경험과 관련된 심리적 반응을 측정하는 2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 척도는 외상 혹은 스트레스 사건과 관련된 침습, 회피, 과각성 증상의 3요인 구조였으며 Eun 등(2005)의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에서는 과각성, 회피, 침투, 수면 및 마비 증상의 4요인 구조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Eun 등(2005)이 번안한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K-IES-R)을 사용하였다.

Table 1. *The 'Concept of Shame' Table Provided to the Participants*

Concept of Shame		Expression related to the experience
1. Shame focused on self		'embarrassed'
2. Shame focused on others	2.1 the role of others – audience of the situation, passive	'ashamed', 'shameful'
	2.2 the role of others – playing leading roles in the situations, active	'humiliated', 'neglected', 'abased'

www.kci.go.kr

본 연구에서 내적 수치심 기억의 경우, 사건중심성척도 단축형의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89, 사건충격척도 수정판의 내적 일관성은 .93이었으며, 외적 수치심 기억의 경우, 사건중심성척도 단축형의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94, 사건충격척도 수정판의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94였다. 외적 굴욕감 수치심 기억의 경우에는 각각 .94, .95로 나타났다.

이후 연구 참여자들은 다음의 설문에 응답하였다.

간이 핵심 도식 질문지(Brief Core Schema Scales, BCSS)

Fowler 등(2006)이 개발한 척도로 타인 및 자기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신념을 측정하는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 상에서 응답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저자인 Fowler의 사전 승인을 받아(Fowler, D., Personal communication, July 26, 2012), 저자들이 번안,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BCSS의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부정적 자기도식이 .95, 긍정적 자기도식이 .87, 부정적 타인도식이 .86, 긍정적 타인도식이 .90으로 나타났다.

편집 척도(Paranoia Scale, PS)

Fenigstein과 Vanable (1992)이 제작하고 Lee와 Won (1995)이 번안 타당화한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들은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를 기초로 구성되었으며, 타인에 대한 의심, 피해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편집증적 경향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 α)는 .90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척도(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

Mattick과 Clarke (1998)이 개발한 척도로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매우 그러하다)에 이르는 5점 척도 상에서 평정된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기술하는 자기 진술문 형식으로 제시된다. 본 연구에서는 Kim (2001)이 번안한 한국판 SIA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 α)는 .92로 나타났다.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세가지로 구분된 수치심 기억의 사건중심성, 사건충격도가 편집성향 및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의 투입 순서는 본 연구의 가설에 따라 결정하였다. 또한 외적 굴욕감 수치심 기억이 편집성향이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자기, 타인도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aney (1986)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Preacher와 Hayes (2008)의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추가로 적용하였다. 통계분석프로그램으로는 SPSS 18.0을 사용하였다.

결 과

수치심 기억과 편집성향, 사회불안 간 상관

수치심 기억의 사건중심성, 사건충격도와 편집성향, 사회불안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Table 2에 구체적인 상관계수를 제시하였다. CES 단축형으로 측정한 수치심 기억의 사건중심성의 경우, 세 종류의 기억 모두 편집성향, 사회불안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편집성향과의 상관은 외적 굴욕감 수치심, 외적 수치심, 내적 수치심의 사건중심성 순으로 높았다. 또한 사회불안과는 내적 수치심, 외적 수치심, 외적 굴욕감 수치심의 사건중심성 순으로 높은 정적 상관이 관찰되었다.

K-IES_R로 측정한 수치심 기억 사건충격도의 경우, 편집성향과는 세 종류의 기억 모두와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외적 굴욕감 수치심, 내적 수치심, 외적 수치심의 사건충격도 순으로 상관계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불안과는 내적 수치심, 외적 수치심의 사건충격도와 정적 상관이 관찰되었으며, 내적 수치심이 외적 수치심보다 상관계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치심 기억의 사건 충격도와 중심성의 곱하기 점수를 산출하였는데, 이는 수치심 기억이 개인에게 주관적 고통을 준 동시에 개인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 정도를 수량화하기 위함이었으며, 이후의 회귀분석에서는 이 점수를 사용하였다. 수치심 기억의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Centrality/Impact of Shame Memory and Paranoia, Social anxiety (N = 114)*

	PS	SIAS
CES-SF		
Internal shame	.306**	.307**
External shame	.340**	.265**
External-humiliative shame	.433**	.225*
IES-R		
Internal shame	.336**	.328**
External shame	.323**	.231*
External-humiliative shame	.461**	.173

Note. CES-SF = Centrality of Event Scale-Short Form; IES-R =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PS = Paranoia Scale; SIAS =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p < .05. **p < .01.

www.kci.go.kr

https://doi.org/10.15842/kjcp.2017.36.1.005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the Centrality × Impact Score for Shame Memory and Paranoia, Social Anxiety (N = 114)*

	PS	SIAS
CES-SF × IES-R		
Internal shame	.340**	.345**
External shame	.341**	.263**
External-humiliative shame	.443**	.158

Note. CES-SF = Centrality of Event Scale-Short Form; IES-R =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PS = Paranoia Scale; SIAS =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p < .01.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Effect of Shame Memory on Paranoia (N = 114)*

Predictor	β	R^2	ΔR^2	*F*
Step 1				
External-humiliative shame	.443***	.197	.197	27.400***
Step 2				
External-humiliative shame	.364***	.216	.019	13.605***
External Shame	.161			
Step 3				
External-humiliative shame	.345**	.219	.003	10.311***
External shame	.109			
Internal shame	.086			

Note. External-humiliative Shame = Centrality of Event Scale-Short Form. ×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for external-humiliative shame Memory; External Shame = Centrality of Event Scale-Short Form. × Impact of Event for external shame Memory; Internal Shame = Centrality of Event Scale-Short Form. × Impact of Event for internal shame Memory.
**p < .01. ***p < .001.

중심성과 사건충격도의 곱하기 점수와 편집성향, 사회불안 간 상관계수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편집성향의 경우 외적 굴욕감 수치심과의 상관이 가장 컸으며 외적 수치심 및 내적 수치심과의 비슷한 수준의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사회불안의 경우엔 내적 수치심, 외적 수치심 순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외적 굴욕감 수치심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관찰되지 않았다.

수치심 기억이 편집성향에 미치는 영향

세 종류의 수치심 기억의 사건충격도와 사건중심성이 편집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토대로, 외적 굴욕감 수치심, 외적 수치심, 내적 수치심 순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외적 굴욕감 수치심의 설명력은 단계 1에서 유의미하였고, β = .443, p < .001, 단계 2와 3에서도 유의미하였다, β = .364, p < .001; β = .345, p < .01. 그러나 외적 굴욕감 수치심을 통제하였을 때 외적 수치심과 내적 수치심의 설명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β = .109, *ns*; β = .086, *ns*.

Table 5.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Effect of Shame Memory on Social Anxiety (N = 114)*

Predictor	β	R^2	ΔR^2	*F*
Step 1				
Internal shame	.345***	.119	.119	15.143***
Step 2				
Internal shame	.316*	.120	.001	7.566**
External shame	.041			
Step 3				
Internal shame	.327*	.121	.001	5.309**
External shame	.051			
External-humiliative shame	-.035			

Note. External-humiliative Shame = Centrality of Event Scale-Short Form. ×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for external-humiliative shame Memory; External Shame = Centrality of Event Scale-Short Form. × Impact of Event for external shame Memory; Internal Shame = Centrality of Event Scale-Short Form. × Impact of Event for internal shame Memory.
*p < .05. **p < .01. ***p < .001.

수치심 기억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세 종류 수치심 기억의 사건충격도, 사건중심성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토대로, 내적 수치심, 외적 수치심, 외적 굴욕감 수치심 순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내적 수치심의 설명력은 단계1에서 유의미하였고, β = .345, p < .001, 단계2와 3에서도 유의미하였다, β = .316, p < .05; β = .327, p < .05. 그러나 내적 수치심을 통제하였을 때 외적 수치심과 외적 굴욕감 수치심의 설명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β = .051, *ns*; β = -.035, *ns*.

수치심 기억과 편집성향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기, 타인도식의 매개효과

앞의 분석에서 세 가지 수치심 기억 중 편집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외적 굴욕감 수치심 기억의 사건중심성 × 사건충격도 점수를 독립변수로, 편집성향을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 부정적 자기 및 타인도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 (1986)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정적 자기도식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외적 굴욕감 수치심 기억이 매개변수인 부정적 자기도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고, β = .304, p < .01, 2단계에서 외적 굴욕감 수치심 기억이 편

www.kci.go.kr

Table 6. *The Mediation Effect of Negative Self Belief between External-humiliative Shame Memory and Paranoia (N = 114)*

Step	Variable	B	β	R^2	*F*
Step 1	S3→Negative-Self	.002	.304**	.092	11.311**
(Predictor→Mediator)					
Step 2	S3→PS	.009	.443***	.197	27.400***
(Predictor→Dependent Variable)					
Step 3	S3→PS	.007	.354**	.274	20.768***
(Predictor, Mediator→Dependent Variable)	Negative-Self→PS	.784	.228**		

Note. S3 = Centrality of Event Scale-Short Form. ×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for external-humiliative shame Memory; Negative-Self = Negative Self Subscale of Brief Core Schema Scales; PS = Paranoia Scale.
**$p < .01$. ***$p < .001$.

Table 7. *The Mediation Effect of Negative Other Belief between External-humiliative Shame Memory and Paranoia (N = 114)*

Step	Variable	B	β	R^2	*F*
Step 1	S3→Negative-Other	.002	.328***	.107	13.354***
(Predictor→Mediator)					
Step 2	S3→PS	22.877	.443***	.197	27.400***
(Predictor→Dependent Variable)					
Step 3	S3→PS	.005	.266**	.451	27.400***
(Predictor, Mediator→Dependent Variable)	Negative-Other→PS	1.502	.535***		

Note. S3 = Centrality of Event Scale-Short Form. ×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for external-humiliative shame Memory; Negative-Other = Negative Other Subscale of Brief Core Schema Scales; PS = Paranoia Scale.
***$p < .01$. ***$p < .001$.*

집성향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미하였다, β = .443 $p < .001$. 3단계에서 편집성향에 대한 외적 굴욕감 수치심 기억의 영향력은 부정적 자기도식의 효과를 통제하였을 때 줄어들어, β = .443 > β = .354, 부정적 자기도식은 외적 굴욕감 수치심 기억과 편집성향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부정적 타인도식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외적 굴욕감 수치심 기억이 매개변수인 부정적 타인도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고, β = .328, $p < .001$, 2단계에서 수치심 기억이 편집성향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미하였다, β = .443, $p < .001$. 3단계에서 편집성향에 대한 외적 굴욕감 수치심 기억의 영향력은 부정적 타인도식의 효과를 통제하였을 때 줄어들어, β = .443 > β = .266, 부정적 타인도식은 외적 굴욕감 수치심 기억과 편집성향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Preacher와 Hayes (2008)의 부트스트래핑 기법에 따른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부정적 자기도식은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indirect effect = .0017, 95% CIs = .0006-.0036, 부정적 타인도식의 경우에도 유의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indirect effect = .0034, 95% CIs = .0014-.0062.

이상의 결과는 수치심 기억 중 편집성향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적 굴욕감 수치심 기억, 사회불안의 경우에는 내적 수치심 기억이라는 가설과 일치한다. 또한 타인에 초점을 맞춘 수치심 기억 중에서도, 타인의 역할이 소극적인 외적 수치심 경험은 편집성향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의 역할이 적극적인 외적 굴욕감 수치심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이 확인되었다. 외적 굴욕감 수치심과 편집성향과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기, 타인도식의 매개효과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 기억의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수치심의 이론적 구분에 따라 수치심 기억을 세 종류로 구분하고 각각이 편집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때 수치심 기억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외적 굴욕감 수치심 기억과 편집증의 관계에서 자기,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도식적 신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수치심 경험을 내적 수치심, 외적 수치심, 외적 굴욕감 수치심 세 종류로 구분하여 수집하였고, 편집증, 사회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수치심 기억은 각각 외적 굴욕감 수치심 기억, 내적 수치심 기억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편집성향에는 외적 굴욕감 수치심 기억의 사건중심성과 사건충격도가, 사회불안에는 내적 수치심 기억의 사건

www.kci.go.kr

https://doi.org/10.15842/kjcp.2017.36.1.005

중심성과 사건충격도가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또한 외적 굴욕감 수치심 기억과 편집성향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기, 타인 도식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치심 기억의 속성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의 심리적 어려움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수치심 기억 중에서, 타인이 자기를 무시하거나, 놀리거나, 괴롭히는 등 보다 주도적, 공격적 역할을 하는 상황에 대한 기억이 편집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편집증과 수치심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었다. 이는 수치심이 우울과 같은 신경증 증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전통적인 관점 때문에, 정신증 증상으로 분류되는 편집증과 수치심의 관계는 심리학 문헌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Nam, 200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내적, 외적 수치심의 이론적 구분(Gilbert, 1997, 1998, 2007)을 토대로, 수치심이 전반적인 자기 비하, 자신의 결함에 대한 지각에서 비롯되는 정서일 뿐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무시, 굴욕, 평가절하당하는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수치심 경험을 수집함으로써, 편집증과 수치심 간의 연관성을 보다 명료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의 수치심 연구에서는 외적, 내적 수치심의 구분을 활용하여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과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외적 수치심을 세분화하여 측정한 결과, 수치심 경험에서 타인의 역할이 적극적인 경우에는 편집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타인의 역할이 소극적인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편집증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치심 기억은, 단순히 타인의 시선에 스스로가 부끄러운 존재로 비춰지는 경험, 우리말 단어로 표현하자면 '창피함'을 느끼는 수준의 경험을 넘어, 타인의 적대적 의도가 보다 명백하게 지각되는 굴욕감, 모멸감 등의 정동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무시, 위협, 모욕 등을 비롯한 초기 대인관계의 부정적인 경험이 편집증의 발전에 취약성을 제공한다는 위협예상모형(Freeman et al., 2005; Freeman & Garety, 2003, 2004; Freeman, Garety, & Fowler, 2008; Freeman, Garety, Kuipers, Fowler, & Bebbington, 2002; Savatore et al., 2012)의 가정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편집증이 극단적, 경직적 양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피해망상으로 분류되며, 흔히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를 비롯한 정신증적 장해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망상 수준에 이르지 않는 편집관념(paranoid ideation)은 일반 인구에서도 흔히 나타나며(Freeman, 2006), 심리 평가 및 상담 장면을 찾는 내담자들이 주변에 대한 만성적인 불신감, 막연한 피해 사고 등을 호소하는 경우 또한 드물지 않다. 정신분석학자 Steiner (2015)는 수치심 정동군 중에서도 굴욕감(humiliation)이 개인에게 가장 강렬한 불편감을 초래하는 감정이라 한 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이는 편집성향을 보이는 개인들에 대한 치료적 개입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감정으로 생각된다. 즉, 편집성향을 지닌 개인들의 경우에, 생애 초기의 대인관계 외상에 대한 탐색이 중요할 뿐 아니라 그 사건 내에서 경험한 굴욕감, 모욕감 등의 수치심 감정에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편집증과 대조적으로, 사회불안은 내적 수치심,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수치심 기억과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Matos et al., 2013)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내적 수치심 기억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밝힐 수 있었다. 한편 연구결과 타인이 주도적이고 공격적인 역할을 하는 외적 굴욕감 수치심 기억뿐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자기가 부끄럽게 비추어지는 외적 수치심 기억 또한 사회불안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불안의 경우에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공포(Fear of Negative Evaluation)가 증상의 유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는 점(Winton, Clark, & Edelmann, 1955)과 상충되는 결과이다. 이는 사회불안을 지닌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자신이 타인의 눈에 어떻게 비추어질지 가정한다는 Clark와 Wells (1995)의 설명을 바탕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다. 즉 사회불안의 경우에는 타인의 평가에 대한 염려에서,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청중, 혹은 무시하고 모욕하는 가해자로서의 타인의 존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기보다는, 자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기반으로 구성된 사회적 자기(social self)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사회불안을 지닌 개인들은 실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비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Norton & Hope, 2001). 이는 사회불안을 지닌 개인들의 치료적 개입에서는, 지나친 수준의 내적 수치심, 즉 자기에 대한 비현실적인 수준의 부정적 평가나 열등감을 다루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겠다.

또한 외적 굴욕감 수치심 기억과 편집증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기, 타인도식의 매개효과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Lee와 Won (1997)의 선행 연구에서 편집성향은 부정적 자기개념 및 타인개념과 관련이 높으며, 타인개념이 자기개념에 비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편집증은 부정적 자기, 타인도식과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그 중에서도 부정적 타인도식과의 상관이 높은 편이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BCSS를 직접 번안, 타당화해 사용하여, 선행연구(Kilcommons & Morrison, 2005; Salvatore et al., 2012)에서 편집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취약하고 열등한 자기, 적대적이고 냉혹한 타인에 대한 신념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매개효과가 검증됨으로써, 과거의

www.kci.go.kr

외상적인 대인관계 경험을 통해 형성된 자기, 타인 도식이 현재의 경험을 편집증적으로 해석하는 맥락을 제공한다는 위협예상모형(Freeman et al., 2005; Freeman & Garety, 2003, 2004; Freeman, Garety, & Fowler, 2008; Freeman, Garety, Kuipers, Fowler, & Bebbington, 2002; Savatore et al., 2012)의 가정이 지지되었다. 이는 편집증의 치료적 접근에서,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 및 그 사건 속에서 경험한 고통스러운 정서뿐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핵심적인 신념, 또한 그 신념이 현재의 사고, 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통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에 근거한 개인의 회상을 바탕으로 한 회고적 연구로서, 현재 개인의 지각, 인지, 정서가 과거 기억의 인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특정 인지적 편향은 기억 그 자체나 현재의 정서적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Tran, Hertel, & Joorman, 2011). 특히 편집증의 경우 모호한 외부의 단서를 적대적인 방향으로 지각하는 인지적 편향이 특징적인데, 이에 과거의 경험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도 타인의 적대적 의도를 지각하는 방향으로의 편향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편집증에서의 자서전적 인출 편향을 명확히 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며, 향후 자서전적 기억 검사(Williams & Boradbent, 1968)와 같은 방법론을 통해 본 연구 결과에서의 방향성을 명료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치심 기억과 편집증의 관계에서 도식적 신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면서, 수치심 기억이 도식적 신념에 시간적으로 선행할 것이라 가정하였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단적인 연구설계를 통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겠다.

둘째, 수치심 기억은 내밀한 수준의 경험이기 때문에 의식적 수준의 자기 보고식 측정으로는 수치심 기억의 정확한 포착에 한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세 종류의 수치심을 이론적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각각의 수치심 개념을 제공하고 관련된 경험을 보고하게 하였는데, 이는 수치심의 자연스러운 측정을 방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치료 혹은 상담 장면에서 보고되는 수치심 경험과 정신병리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보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풍부하게 보고되는 과거의 수치심 경험이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편집증에 영향을 미치는 수치심 기억은 타인에, 사회불안의 경우 자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외상적 경험으로서의 수치심 기억과 편집의 관계에서 부정적 타인도식의 매개효과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선행연구의 수치심 기억과 편집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이는 편집의 위협예상모형을 검증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References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Arlington, VA: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ndrews, B., Qian, M., & Valentine, J. D. (2002). Predicting depressive symptoms with a new measure of shame: The Experience of Shame Scale.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1*, 29-42.

Ausubel, D. P. (1955). Relationships between shame and guilt in the socializing process. *Psychological Review, 62*, 378-390.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Benedict, R. (1946).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Boston, MA: Houghton Mifflin.

Bentall, R. P., Corcoran, R., Howard, R., Blackwood, N., & Kinderman, P. (2001). Persecutory delusions: A review and theoretical integrat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21*, 1143-1192.

Berntsen, D., & Rubin, D. C. (2006). The centrality of event scale: A measure of integrating a trauma into one's identity and its relation to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 219-231.

Birchwood, M. (2003). Pathways to emotional dysfunction in first episode psychosi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2*, 373-375.

Buss, A. J. (1980).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anxiety*. San Fransisco: Freeman.

Campbell, M. L. C., & Morrison, A. P.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bullying, psychotic-like experiences and appraisals in 14-16 year olds.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45*, 1579-1591.

Cho, M. S., & Lee, Y. H (2011). A validation study of the centrality of event scale-korean vers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0*, 763-774.

Clark, D. M., & Wells, A. (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In R. Heimberg, M.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er (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pp. 69-93). New York: Guilford Press.

Clark, J. V., & Arkowitz, H. (1975). Social anxiety and self-evaluation of interpersonal performance. *Psychological Reports, 36*, 211-221.

Cook, D. R. (1993). *The internalized shame scale manual.* Menomonie, WI: Channel Press.

Elison, J., & Harter, S. (2007). Humiliation: Causes, correlates, and consequences. In J. L., Tracy, R. W. Robins, & J. P. Tangney (Eds.), *The self-conscious emotions: Theory and research* (pp. 310-

www.kci.go.kr

https://doi.org/10.15842/kjcp.2017.36.1.005

329). New York: Guilford Press.

Eun, H. J, Kwon, T. W., Lee, S. M., Kim, T. H., Choi, M. R., & Cho, S. J. (2005). A study o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4*, 303-310.

Fenigstein, A., & Vanable, P. A. (1992). Paranoia and self-consciou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129-138.

Fowler, D., Freeman, D., Smith, B., Kuipers, E., Bebbington, P., Bashforth, H., ... Garety, P. (2006). The Brief Core Schema Scales(BCS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associations with paranoia and grandiosity in non-clinical and psychosis samples. *Psychological Medicine, 36*, 749-759.

Freeman, D. (2006). Delusions in the non-clinical population. *Current Psychiatry Reports, 8*, 191-204.

Freeman, D. (2007). Suspicious minds: The psychology of persecutory delusion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7*, 425-457.

Freeman, D., & Fowler, D. (2009). Routes to psychotic symptoms: Trauma, anxiety and psychosis-like experiences. *Psychiatry Research, 169*, 107-112.

Freeman, D., & Garety, P. A. (2000). Comments on the content of persecutory delusions: Does the definition need clarification?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9*, 407-414.

Freeman, D., & Garety, P. A. (2003). Connecting neurosis and psychosis: The direct influence of emotion on delusions and hallucinat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1*, 923–947.

Freeman, D., & Garety, P. A. (2004). *Paranoia: The psychology of persecutory delusions*. New York: Psychology Press.

Freeman, D., Garety, P. A., Bebbington, P. E., Smith, B., Rollinson, R., Fowler, D., ... Dunn, G. (2005). Psychological investigation of the structure of paranoia in a non-clinical population.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6*, 427-435.

Freeman, D., Garety, P., & Fowler, D. (2008). The puzzle of paranoia. In D. Freeman, R. P. Bentall, & P. Garety (Eds.), *Persecutory delusions: Assessment, theory, and treatment* (pp. 121-14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Freeman, D., Garety, P. A., Kuipers, E., Fowler, D., & Bebbington, P. E. (2002). A cognitive model of persecutory delusion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1*, 331-347.

Gilbert, P. (1997). The evolution of social attractiveness and its role in shame, humiliation, guilt and therapy. *The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70*, 113-147.

Gilbert, P. (1998). The evolved basis and adaptive functions of cognitive distortions. *The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71*, 447-463.

Gilbert, P. (2001). Evolution and social anxiety: The role of attraction, social competition, and social hierarchies.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24*, 723-751.

Gilbert, P. (2007). The evolution of shame as a marker for relationship security. In J. L. Tracy, R. W. Robins, & J. P. Tangney (Eds.), *The self-conscious emotions: Theory and research* (pp. 283-309). New York: Guilford.

Gilbert, P., Allan, S., & Goss, K. (1996). Parental representations, shame, interpersonal problems, and vulnerability to psychopathology.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3*, 23-34.

Gilbert, P., Boxall, M., Cheung, M., & Irons, C. (2005). The relation of paranoid ideation and social anxiety in a mixed clinical population.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12*, 124-133.

Goss, K., Gilbert, P., & Allan, S. (1994). An exploration of shame measures I: "The Other as Shamer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 713-717.

Gracie, A., Freeman, D., Green, S., Garety, P. A., Kuipers, E., Hardy, A., ... Fowler, D. (2007). The association between traumatic experience, paranoia and hallucinations: A test of the predictions of psychological models.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16*, 280-289.

Kilcommons, A. M., & Morrison, A. P. (2005). Relationships between trauma and psychosis: An exploration of cognitive and dissociative factors.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12*, 351-359.

Kim, H. S. (2001). *Memory bias in subtypes of social phob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Kinderman, P., & Bentall, R. P. (1996). Self-discrepancies and persecutory delusions: Evidence for a model of paranoid ide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106-113.

Kwon, S. M., & Kim, J. Y. (2002). Relationships of mental presentations on delf and significant others with interpersonal problem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 705-726.

Lee, D. A.. Scragg, P., & Turner, S. (2001). The role of shame and guilt in traumatic events: A clinical model of shame-based and guilt-based PTSD.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74*, 451-466.

Lee, H. J., & Won, H. T. (1995). A study of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of the paranoia scal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4*, 83-94.

Lee, H, J., & Won, H. T. (1997). The self-concepts, the other-concepts, and attributional styles in paranoia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7*, 105-125.

Lee, M. Y. (2006). *The relationship of adolescent attachment and depress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jou University, Gyeonggi, Korea.

Leeming, D., & Boyle, M. (2013). Managing shame: An interpersonal perspectiv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2*, 140-160.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Lewis, M., Sullivan. M. W., Stranger, C., & Weiss, M. (1989). Self

www.kci.go.kr

development and self-conscious emotions. *Child Development, 60*, 146-156.

Lopes, B. C. (2011). Differences between victims of bullying and non-victims on levels of paranoid ideation and persecutory symptoms, the presence of aggressive traits, the display of social anxiety and the recall of childhood abuse experiences in a portuguese mixed clinical sample.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20*, 254-266.

Lutwak, N., & Ferrari, J. R. (1997). Shame-related social anxiety: Replicating a link with various social interaction measures. *Anxiety, Stress, and Coping, 10*, 335-340.

Matos, M., Ferreira, C., Duarte, C., & Pinto-Gouveia, J. (2015). Eating disorders: When social rank perceptions are shaped by early shame experiences.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88*, 38-53.

Matos, M., & Pinto-Gouveia, J. (2010). Shame as a traumatic memory.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17*, 299-312.

Matos, M., Pinto-Gouveia, J., & Gilbert, P. (2013). The effect of shame and shame memories on paranoid ideation and social anxiety.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20*, 334-349.

Mattick, R. P., & Clarke, J. C. (1998). Developmental validation of measures of social phobia scrutiny fear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 455-470.

Murray, C., Waller, G., & Legg, C. (2000). Family dysfunction and bulimic psychopathology: The mediating role of sham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8*, 84-89.

Nam, K. S. (2008). *Coping strategy effects on psychological symptoms associated with shame- and guilt-inducing experienc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Nam, K. S., Cho, S. M., & Lee, H. J. (200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Shame Scal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5*, 1063-1086.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13).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Seoul: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Norton, P. J., & Hope, D. A. (2001). Kernels of truth or distorted perceptions: Self and observer ratings of social anxiety and performance. *Behavior Therapy, 32*, 765-786.

O'Connor, L. E., Berry, J. W., Inaba, D., Weiss, J., & Morrison, A. (1994). Shame, guilt, and depression in men and women in recovery from addiction.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11*, 503-510.

Pinto-Gouveia, J., & Matos, M. (2011). Can shame memories become a key to identity? The centrality of shame memories predicts psychopathology.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5*, 281-290.

Pinto-Gouveia, J., Matos, M., Castilho, P., & Xavier, A. (2014) Differences between depression and paranoia: The role of emotional memories, shame and subordination.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21*, 49-61.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 879-891.

Robinaugh, D. J., & McNally, R. J. (2010). Autobiographical memory for shame or guilt provoking events: Association with psychological symptom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8*, 646-652.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Salvatore, G., Lysaker, P. H., Popolo, R., Procacci, M., Carcione, A., & Dimaggio, G. (2012). Vulnerable self, poor understanding of others' minds, threat anticipation and cognitive biases as triggers for delusional experience in schizophrenia: A theoretical model.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9*, 247-259.

Schmidt, N. B., Joiner Jr, T. E., Young, J. E., & Telch, M. J. (1995). The schema questionnaire: Investigation of psychometric properties and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a measure of maladaptive schema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 295-321.

Steiner, J. (2015). Seeing and being seen: Shame in the clinical situa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96*, 1589-1601.

Tangney, J. P. (1990).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proneness to shame and guilt: Development of the Self-Conscious Affect and Attribution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02.

Tangney, J. P., & Dearing, R. L. (2002). *Shame and guilt*. New York: Guilford Press.

Tangney, J. P., Wagner, P., & Gramzow, R. (1992). Proneness to shame, proneness to guil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469.

Tracy, J. L., Robins, R. W., & Tangney, J. P. (2007). *The self-conscious emotions: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Guilford Press.

Tran, T. B., Hertel, P. T., & Joormann, J. (2011). Cognitive bias modification: Induced interpretive biases affect memory. *Emotion, 11*, 145-152.

Weiss, D. S., & Marmar, C. R. (1997). The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n J. P. Wilson, & T. M. Keane (Eds.). *Assessing psychological trauma and PTSD* (pp. 399-411). New York: Guilford Press.

Williams, J. M. G., & Broadbent, K. (1986). Autobiographical memory in suicide attempt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5*, 144-149.

Wilson, J. P., Drozdek, B., & Turkovic, S. (2006). Posttraumatic shame and guilt. *Trauma, Violence, & Abuse, 7*, 122-141.

Winton, E. C., Clark, D. M., & Edelmann, R. J. (1995). Social anxiety,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the detection of negative emotion in other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3*, 193-196.

Won, H. T., & Lee, H. J. (1997). The self-concept and attributional style in paranoid group.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16*, 173-

www.kci.go.kr

https://doi.org/10.15842/kjcp.2017.36.1.005

182.
Yoo, S. J., & Kwon, S. M. (2008). Theoretical review of the schema and the mode concepts in psychotherapie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7*, 91-117.
Young, J. E. (1990). *Cognitive therapy for personality disorders: A schema focused approach*.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 Exchange.

국문초록

수치심 기억과 도식적 신념이 편집성향에 미치는 영향

백다예[1] · 이훈진[2]
[1]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2]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Matos, Pinto-Gouveia, & Gilbert (2013)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치심 기억이 편집성향과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때, 수치심이 부정적인 자기 지각, 전반적인 자기 비하와 관련된 감정일 뿐 아니라, 타인의 판단, 대인관계 맥락에서 평가절하되는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수치심 기억을 내적 수치심, 외적 수치심, 외적 굴욕감 수치심 세 종류로 나누어 수집하고, 각각의 수치심 기억이 편집성향과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편집증의 위협예상모형을 토대로, 부정적인 대인관계 경험인 외적 굴욕감 수치심과 편집증의 관계에서 취약한 자기 및 위협적 타인에 대한 도식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내적 수치심 기억이 사회불안에, 외적 굴욕감 수치심 기억이 편집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또한 외적 굴욕감 수치심과 편집성향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기, 타인 도식은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편집증, 수치심 기억, 도식적 신념, 사회불안

www.kci.go.kr